

# OECD/DAC 제8회 성평등네트워크 정기회의 결과

제8차 GENDERNET 회의가 6.16(수)~18(금)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성평등 및 여성의 경제적 권한부여를 위한 젠더 커뮤니티의 활동 동향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동 회의 주요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 I. 핵심 요지

### 가. 한국의 GENDERNET Bureau member 선출

네트워크는 금번 회의에서 현 Bureau member인 캐나다의 추천과 오스트리아의 제청으로 신규 Bureau member를 선출하였고, 네덜란드를 의장으로 한국, 아일랜드, 핀란드, 독일이 member로 선출됨. 공식임기는 '11.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금번 회의 직후 실질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 나. GENDERNET Task Team 업무 현황 점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태스크팀) 동 태스크팀은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및 농촌빈곤층(rural poor) 지원, 소액금융(micro-credit) 차원을 넘어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등 빈곤친화성장(pro-poor growth)을 위한 원조 모범이행사례집(good practice notes)을 작성 중임.

(원조효과성 제고 태스크팀) 동 태스크팀은 DAC WP-EFF와의 공조를 통해 파리선언의 이행성과 점검(PD Monitoring Survey) 시 기존 12개 평가지표에 3개의 젠더 지표를 추가하여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평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2011년 모니터링 보고서에 수록 예정임.

## 다. GENDERNET 주요 work program 이행 성과 점검

(젠더 통계보고서) DAC 통계작성반 발간 연례 통계보고서는 금년 특집 주제로 “성 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다룰 예정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social sector(교육 및 보건), 인도적 지원, 취약국 지원 분야에서 공여국의 젠더 관련 지원 현황을 수록 예정임.

(동료평가) 사무국은 지난 6개월간 WP-EFF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동료평가 Content Guide"에 젠더 관점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보완작업을 실시함. 그 결과, 동료평가 주요 참고 문헌에 "The DAC Guiding Principles for Aid Effectiveness,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2008)"를 추가하였고, 기존 질의 문항의 문구를 보완함. 개정된 Content Guide는 2011-2012년 동료평가 시 활용될 계획이며, 한국은 2012년 동료평가 수감 예정인 바, 동 평가 항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라. MDG 달성을 위한 관련 기관 활동 현황 공유

(One UN Gender Entity 설립) 현 사무총장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젠더 관련 UN 업무의 효율성 도모, 원조분절화 지양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UNIFEM 주도 하에 UN 내 젠더 관련 4개 기구 업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조직 설립을 추진 중임.

(9월 MDG 정상회담) 금년 9.20-22일 뉴욕 UN 본부에서 MDG 달성 이행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관련 공약사항을 재확인하기 위해 UNDP 주관으로 MDG Summit이 개최될 예정임. UNDP는 금번 정상회담에서 성 평등 도모가 MDG 달성 노력을 위한 핵심 목표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회원국들의 이행의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코자함.

(취약국 지원을 통한 MDG 달성) DAC INCAF는 취약국에서 MDG 달성률이 저조하고, 특히 명시적으로 젠더와 연관된 MDG 1,3,5번 목표 달성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함. 평화 구축과 재건 지원이 MDG 달성의 근간이 됨을 감안, 동 부문 지원 시 젠더 관점 반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년 10월 GENDERNET과 공동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임.

## II. 관찰 및 건의

원조 효과 제고의 차원에서 성 평등 달성과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이행 성과를 점검, 공유하였고, 국제사회 공조(collective action)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확인함.

우리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성 평등 달성을 개발협력 기본정신의 하나로 천명하고, 금번 GENDERNET Bureau 진출을 통해 개발원조에서의 성 평등 달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정책 이행 의지를 표명함. 성 평등 달성과 개도국 여성의 역량강화는 개발성과와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개발목표로서, 이를 위한 지속적 관심과 달성 노력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내외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개발원조에서의 젠더 부문에 대한 KOICA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연구조사 활동 확대, 통계 분석 강화, 모범사업관행 구축 등 KOICA의 조직적 역량 강화 및 체계 구축이 중요함. 한편, ODA 집행기관으로서 정부부처 및 국내·외 젠더 관련 전문가와 기관 간의 공조 체계를 주도적으로 형성하여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내 젠더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사업수행시 시너지 효과의 제고가 요구됨.